건축에 담은 禪 영상으로 만난다

BTN, '선 건축' 다큐 방송

한국불교대표방송 BTN(대표이사 구본일)이 특집 다큐멘터리 '삶의 자리를 짓다-선(禪)건축'을 방송한다.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에서의 촬영도 이루어진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 '삶의 자리를 짓다-선 (禪)건축'에서는 허세를 걷어낸 맨얼굴의 집!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불교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화두로 던져본다.

BTN 관계자는 "참선행이 절대자유를 찾기 위한 구도행이라면 선 건축은 마음의 집, 생각의 집을 지으며 본래면목을 찾고자 하는 구도행"이라면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듯 선 건축은 더 이상 채우고 비울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위법의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삶의 자리를 짓다-선(禪)건축'은 11월 28일 오후 3시 50분에 첫 방송되며, 12월 2일 오전 8시 30분, 12월 4일 오후 2시 50분 방영된다.

신성민 기자

어르신들, 예술로 꽃을 피우다

12월 30일까지 탑골미술관서

어르신들의 예술 활동을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2월 30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관내 탑골미술관서 어르신 작품전시회 '꽃, 피우다'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9일 시작한 2016 탑골대동제의 일환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38개 동아리 및 수업반 어르신과 탑골문화예술학교 소속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전시는 총 3차례 나눠 구성된다. 축제 첫 날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1전시는 탑골문화예술학교 서예 · 서화 · 한국화 작품을 선보였고, 11월 23일~12월 2일 열리는 2전시엔 탑골문화예술학교 유화 · 아크릴화 · 서예 작품 및 사진반 사진 작품이 공개된다.

마지막 3전시는 12월 7~30일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안묵회 · 선묵회 · 서우회 · 화서회 · 한글서예 동아리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관람객엔 노인문화의 역동성을 알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이매방 명인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 왼쪽부터 바라춤, 승무, 장구춤을 추는 모습.

천상 춤꾼, 이매방의 모든 것을 만나다

국립무형유산원,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展

의상 · 소품 · 사진 · 영상 등 총망라
시대 풍미한 춤꾼의 삶 조명해
제자들의 '獻舞'도 9차례 공연
내년 2월 19일까지 전시 진행

우봉 이매방(宇峰 李梅芳, 1927~2015) 명인을 두고 누군가는 말했다. '하늘이 내린 춤꾼'이라고. 지난해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한국무용계의 거목으로 한국 춤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춤꾼 이매방 명인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11월 2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에서 '名舞,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8월 타계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이매방 명인의 향취를 고스란히 담은 유품을 기증받아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이매방 명인이 생전 즐겨 사용한 소품을 비롯해 직접 만들었던 공연 의상과 각종 도구, 활동상을 담은 사진 · 영상 등 118건 275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이매방 명인은 1925년 3월 7일(호적상 1927년 5월 5일) 전남 목포 출생으로 1960년대 '3고무, 5고무, 7고무' 등을 창안해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이후 '승무'(제27호), '살풀이춤'(제97호)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명실공히 구한말 이래 변질되지 않은 전통춤의 원형의 맥을 잇는 선구자로서 널리 인정받게 됐다.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형 승무'로 알려진 그의 승무는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욕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매방 명인의 살풀이춤 공연복.



이매방 명인이 손수 제작한 서랍장.

△이매방, 춤과 인생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나도 춤추고 싶다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춤으로 길을 밝힌 거장이자, 한 예술가로 고뇌했을 인간 이매방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제1부 '이매방, 춤과 인생'에서는 수많은 무대에 오르며 남긴 공연의 기록물들, 제자들에게 받은 손편지와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보유자의 예술인생을 되짚어 보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인간 이매방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2부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에서는 무섭고 완고한 스승이지만 춤만큼이나 정평이 나 있던 옷 짓는 솜씨로 제자들의 의상을 손수 제작해주던 보유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재현했다. 춤추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작업공간에서 보유자의 손때 묻은 유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제3부 '나도 춤추고 싶다'에서는 한평생 춤꾼으로 살아온 이매방의 예술혼이 가득 담긴 춤 연습 공간을 재현했다. 보유자의 춤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이매방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바치는 헌무(獻舞)가 전시 공연으로 진행된다.

제4부 '삶이 춤이고 춤이 삶이다'에서는 사진작가 서헌강의 사진에 기록된 이매방을 만날 수 있다. 삶이 춤에 온전히 녹아내리고 그 삶이 다시 춤이 되어 신명과 흥을 불태우며 전통춤의 명맥을 잇기 위해 일생을 바쳐 온 최고의 예인에게 지나간 길을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전시에 대해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한평생 무형유산을 지키고 이어온 영원한 춤꾼 이매방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과 춤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63)280-14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대 마을터서 찾은 옛 민중의 자취

국립대구박물관 '고대 마을, 시지' 특별전

대구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발굴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마을 유적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2016년 하반기 특별전 '마을, 시지(時至)'를 기획전시실 Ⅰ · Ⅱ에서 연다. 기획전시실 Ⅰ은 내년 8월 6일까지, 기획전시실 Ⅱ는 내년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대구 시지지역의 55개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1만여 점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

시지유적은 수성구 신매동과 노변동, 욱수동을 비롯해 가천동과 삼덕동, 경산 옥산동과 중산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 시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199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왕 · 귀족이 아닌 민중들이 사용했던 것들이었다. 이번 전시 역시 평범한 우리 선조들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획전시실 Ⅰ은 시지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시대별로 개관하며, '시지의 옛 모습과 유적 발견', '선사시대의 시지',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시지', '삼국시대의 시지', '고려 · 조선시대의 시지'라는 주제로 전시한다.

특히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여러면석기는 대구에서 확인된 최초의 구석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천동과 중산동의 원삼국시대 널무덤에서 출토된 칠초철검을 포함한 각종 철기류, 노변동과 욱수동 등 시지지구 고분군의 덧널무덤, 돌덧널무덤, 돌방무덤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와 철기 등도 처음 선보인다.



대구 시지에서 발굴된 도기와 자기. 대구박물관 전시서 만날 수 있다.

기획전시실 Ⅱ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와 생활유적, 고분을 소개하고 중요 유구별 출토 문화재의 특징을 보여준다. 전시는 '삼국시대 시지의 공방과 번영' 및 '시지지역 고분과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시지유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지에 살던 선조들의 문화재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기 위해 수장고 보관형 방식을 택했다.

(053)768-6051

신성민 기자



